

# April 12 복된 삶, 복된 죽음

• 누가복음 23:46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Father, I place my life in your hands!”(《메시지》성경).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후 한마디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 영혼을 부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물으신 바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마 16:17). 베드로가 그 깨달음을 붙잡고 좀 더 치열하게 묵상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지한 성찰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위대한 전환점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과 주체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주께 위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삶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죽음 직전까지,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위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죽음 아닐까요? 순교자들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테반, 바울, 베드로와 수많은 순교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 안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했습니다.

---

나에게 복된 삶, 복된  
죽음은 무엇입니까?

- 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 ② 복된 죽음을 묵상하며 조정할 부분들을 발견합니까?